

2023. 11. 21.(화) 석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3년 11월 21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

자활지원과장 김경원 02-2133-7480

자활정책팀장 조수민 02-2133-7482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8쪽

자활지원팀장 기재일 02-2133-7489

## “응급잠자리로 와서 추위 피하세요”

### 서울시, 한파 대비 노숙인·쪽방 주민 특별보호대책 시행

- 추위 피할 응급 잠자리 확대(응급구호시설 1일 평시 307명 → 최대 675명)
- 한파 위험에 노출되는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 상담반 확대(50명→124명)
- 중증질환 및 고령자 등 건강취약자(거리노숙인 175명, 쪽방주민 153명) 특별관리 실시
- 노숙인 위기대응콜(1600-9582) 24시간 운영, 신고 접수 시 현장출동 강화
- 노숙인, 쪽방촌 등 한파취약계층 방한물품 등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

#거리 노숙인 병원 연계 사례

김OO(여, 65세)은 19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가서 시민권을 획득했다. 이후 정신질환과 범죄 피해로 생활이 어려워져 '23년 한국으로 귀국한 뒤 서울, 경기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게 됐다. '23년 10월 OO종합지원센터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하던 중 정신질환,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김OO님이 거리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연계해 입원치료\*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. 현재 김OO님은 매우 감사해하고 있다고 상담사가 전했다.

\*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으로 진료비 지원

- 서울시는 추위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(금)까지 4개월간 한파대비 「노숙인·쪽방주민 겨울철 특별보호대책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겨울철 노숙인·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주요내용으로는 ▲노숙인 응급 잠

자리 675개 마련 ▲거리 노숙인·쪽방촌 현장상담반 124명 편성 운영 ▲  
 중증질환자 328명 집중관리(거리노숙인 175명, 쪽방주민 153명) ▲  
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운영 ▲식료품 및 방한물품 제공 ▲노숙  
 인 시설·쪽방촌 화재 예방 관리 등이다.

□ 시는 20일,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숙인·쪽방주민 한파피해 사례를  
 공유하고 보호대책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, 한파대비에 만전을 기했다.

**간담회 개최개요**

- ◆ 회의일정 : '23. 11. 20.(월) 10:00 ~ 12:00
- ◆ 주 관 : 서울시(자활지원과)
- ◆ 참석대상 : 서울시·자치구, 노숙인시설(쪽방상담소 포함), 서울지방경찰청,  
 소방재난본부,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자 약 40여명
- ◆ 주요내용 : 대책추진 관련 협조사항 안내, 건의(애로)사항 청취 등



**[ ① 거리상담·순찰 강화 및 응급잠자리 확대운영 ]**

□ 시는 추위에 특히 취약한 거리 노숙인의 안전을 위해 한파특보시 거리  
 상담반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. 우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노숙인 밀  
 집지역과 산재지역을 구분해서 거리 상담반을 운영하며, 상담반은 평  
 시에는 50명이, 한파특보시에는 124명으로 대폭 확대한다. 쪽방촌  
 또한 15개반 30명이 주야간 순찰반을 편성하여 매일 1회 이상 순찰  
 및 상담활동을 진행한다.

○ (\*밀집지역) 평시 21개조 42명 → 한파시 33개조 82명

○ (\*\*산재지역) 평시 4개조 8명 → 한파시 20개조 42명

\* 서울역, 시청을지로, 영등포역 일대

\*\*4대 권역 : 중부권(중구, 종로, 용산 등), 서남권(구로, 금천, 강서 등), 강남권(서초, 강남 등), 동북권(동대문, 중랑 등)

○ (쪽방촌 주간순찰) 5개반 10명(상담소별 1개반 2명)

○ (쪽방촌 야간순찰) 10개반 20명(상담소별 2개반 4명)

□ 갑작스런 한파로 인한 동사 위험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 잠자리도 마련했다. 기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응급구호시설(675명)로 사용하고 고시원 등을 활용하여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숙인을 위한 응급쪽방(임시주거)을 운영한다.

○ (응급구호시설) : 서울역 인근 297명, 영등포역인근 337명, 여성전용 41명

○ (응급쪽방) : 110호(고시원, 쪽방 등 1인 1실)

- 확보내역 : 서울역 주변 65개, 영등포역 주변 30개, 강남·서초·송파 15개

※ 확보사유 : 타 지역의 노숙인 지원 미비 등으로 서울로 대폭 유입되는 경우를 고려, 응급 잠자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함

## [ ② 중증질환자 특별관리 및 화재예방 등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]

□ 시는 특히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중증질환자 등을 따로 분류하여 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. 거리노숙인과 쪽방 주민 중 고령이나 중증질환 등을 가진 328명(거리노숙인 175명, 쪽방주민 153명)명에 대해, 이들의 건강정보 등을 시설·상담원 간 상호공유하고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 보호시설 또는 병원으로 안내하게 된다.

○ 10월 현재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지에 특별관리 대상 노숙인은 175명으로 여러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나 시설입소를 거부하는

경우가 있어 상시 순찰과 상담으로 건강상태 확인 등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.

- 쪽방촌 내에도 건강문제와 고령자 등 153명이 거주하고 있어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쪽방 순찰반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위기상황에 처한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 위기대응 콜센터 ☎ 1600-9582(구호빨리)를 연중무휴로 운영한다. 시는 “아무리 거리상담을 촘촘히 하더라도 겨울철은 노숙인에게 매우 위험한 계절이다. 위기상황에 처한 노숙인을 보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” 라고 당부했다.

-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겨울철 특별보호 대책기간에는 현장출동기관 확대 등 비상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.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은 누구나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☎1600-9582(구호빨리)로 신고하면 된다.
- 노숙인 위기대응콜에서는 위급상황 신고·접수 시 거리상담 현장출동을 강화하고 (3개 시설 → 4개 시설, 차량 5대 → 차량 8대), 경우에 따라 관할 자치구, 경찰, 지역 소방서, 국·공립병원,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운영한다.

□ 시는 노숙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협력하여 민간단체, 종교단체를 통해 기부받은 겨울옷 2만여 점을 서울역 우리옷방, 응급구호방, 노숙인시설, 쪽방상담소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.

- 이랜드복지재단, 영원무역, LH공사 등 기업 및 단체·시민들의 후원으로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을 위한 겨울옷과 속옷 등 2만 점을 확보하였다.

- 기업 및 단체·시민들의 의류 후원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(사)서울노숙인시설협회(02-713-3698)로 문의하면 된다.
  - 한편,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거리노숙인에게 침낭 800개, 핫팩 12만 개 등을 신규로 구매해 지원할 예정이며,
  - 쪽방주민의 경우 의류후원 외에도 기업과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쌀·김치·연탄·의류 등 3종 10,425점의 후원약정을 받았으며, 이외에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전기장판·겨울내의·겨울이불·라면(식료품) 등 추가 후원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다.
- (쪽방 후원문의 : 02-2133-7491, 서울시 자활지원과)

□ 화재예방 및 동파 등의 안전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. 소방관서 협조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소방 장비 작동을 점검하고 쪽방촌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전기·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를 예방할 계획이다.

- 쪽방상담소에는 해빙기를 상시 비치하고, 기온이 많이 떨어져 수도관이 얼게 될 경우 상담소 순찰반이 현장에 나가 수도관 해빙을 지원할 예정이다.

□ 아울러, 따뜻한 급식도 계속 제공한다. 노숙인종합지원센터, 일시보호시설, 서울역 실내 급식시설(따스한 채움터)에서 1일 최대 총 2,133식을 제공한다.

구분	계	종합지원센터			일시보호시설				따스한 채움터
		다시서기	브릿지	영등포보현	옹달샘	햇살	만나샘	디딤센터	
급식인원(명)	2,133	350	350	299	244	160	214	66	450
급식시간	-	중석식	조중식	중석식	중석식	중석식	중석식	3식	중·석식

※ 조식(5시~8시), 중식(11시~13시), 석식(17시~19시), 단, 시설별 여건에 따라 정확한 급식시간은 상이함.

-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“한파는 노숙인·쪽방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. 그만큼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모두 중요하다.”라며 “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한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보호 대책을 잘 시행해 나가는 등, 최선을 다해 보살피도록 하겠다”라고 전했다.

- 붙임 1. 노숙인 구호서비스 운영 포스터 2종  
2. 보도자료 관련 Q&A

서울특별시 **노숙인!** *독거노숙인 특별서비스*

우리의 관심과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.

**노숙인 위기대응콜**  
1 6 0 0  
9 5 8 2  
구 호 별 리

여성노숙인, 어린이 동반 노숙인, 위기에 처한 노숙인

위기대응콜로 연락주시면 상담과 출동을 통해 탈노숙을 지원합니다.

노숙인 위기대응콜, 이렇게 운영됩니다.

- 하루** 365일 24시간 운영을 통한 상담접수 및 조치
- 누구** 노숙인, 노숙위기계층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
- 셋** 가리노숙인에 대한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

서울특별시 **노숙인!** *독거노숙인 특별서비스*

우리의 관심과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.

노숙인 위기대응콜 **구 호 별 리**  
**1600-9582**

여성노숙인, 어린이 동반 노숙인, 위기에 처한 노숙인  
위기대응콜로 연락주시면 상담과 출동을 통해 탈노숙을 지원합니다.

노숙인 위기대응콜, 이렇게 운영됩니다.

- 365일 24시간 운영을 통한 상담 접수 및 조치
- 노숙인, 노숙위기계층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
- 가리노숙인에 대한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

Q1. '응급 잠자리'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?

- 노숙인이면 누구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로 직접 찾아가시거나 거리상담을 통해 희망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.

Q2. '응급 잠자리'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?

- '22년~'23년 1일 평균 응급 잠자리 이용자는 377명으로 이에 '23년~'24년 최대 675명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만약 부족시 시설내 유희공간을 더 확보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.

Q3. 추운 겨울에 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인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?

-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(1600-9582)로 연락하면 됩니다.
- 신고시 시설 상담원이 현장으로 출동해서 노숙인이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.